고흥군,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농업 육성 '청신호'

439억 규모 '에너지 융합 국책과제 공모' 선정
직류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고흥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439억원 규모의 에너지 융합 국책과제 2건이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산업통상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02억원 규모의 '직류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총사업비 237억원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직류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고효율 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햇빛 투과율 조절이 가능한 투과형 태양광 모듈과 잉여 전력의 열에너지 전환 기술 등을 적용해 스마트팜 에너지 소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단지의 첨단 기반시설을 활용해 추진되며, 기술 검증부터 실제 농가 적용, 수익모델 창출까지 전 과정을 민·관·연 협력체계로 수행할 예정이다.

군과 전남테크노파크는 두 사업을 연계 추진해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를 단순 생산단지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융합 기술 테스트베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탄소중립형 농업 모델과 에너지 관리 기술을 패키지화해 국내는 물론 중동·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스마트팜' 수출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 경영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남테크노파크의 실증 기반시설과 참여기관의 기술력을 결합해 고흥군이 탄소중립 농업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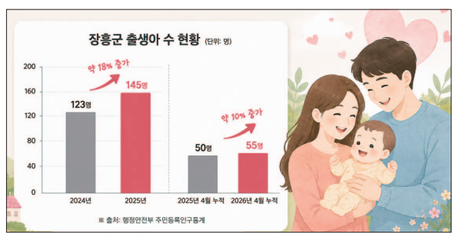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 전경. 사진제공=고흥군청

경영난 양파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30여명이 최근 대동면 금덕리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해 생육이 저조해지고, 조생양파 가격마저 폭락하며 경영난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제공=함평군청

장흥, 출생아 증가…맞춤 정책 통했다

출산장려금 등 영향…출생아 수 2년 연속↑



장흥군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군은 2025년 출생아 수가 145명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 기준 누적 출생아 수가 55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은 출생기본소득, 출산장려금,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분할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공공·민간·가정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이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양, 철강산업 AI 기반 제조혁신 지원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실증센터 구축사업 선정

광양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 중인 산업위기 대응 연계사업의 하나로, 철강·금속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주관기관으로 전남도와 광양시를 비롯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철강협회,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21억원(국비 140억원·도비 18억원·시비 42억원·민간현물 21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비 매칭과 함께 KTL 광양분소에 AX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철강·금속 제조 및 가공산업의 AX 실증 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실증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개발, AX 실증 및 현장 기술지원, 온프레미스 AI 인프라 구축, 기업 맞춤형 AX 전환 지원, AI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강화, 탄소규제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기술 부족 등으로 AI 전환에 한계를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철강·금속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 에너지 절감 등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구례, 어린이 특별 기획전 운영

25일까지 섬진강수달생태공원

구례군은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일원에서 어린이 특별 생태체험전 '작은 정글'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기존 수달 중심의 관람 콘텐츠를 확장해 곤충·파충류·양서류 등 다양한 생물 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결합한 참여형 생태문화 행사다. 실내·외 공간을 활용한 '테마형 생태 탐험 로드'방식으로 운영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숲속의 작은 거인, 곤충존'에서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 등 인기 곤충과 희귀 곤충 15종을 선보인다. 생애주기 관찰 키트와 팝업 전시패널도 함께 운영해 자연스럽게 생태 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내 '신비한 파충류존'에서는 크레스티드 게코, 카멜레온, 개구리 등 희귀 파충류·양서류 20여종을 전시한다. 열대우림 콘셉트의 체험형 공간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야외 잔디광장에는 설가타 육지거북 등을 만날 수 있는 '거북이 정원'도 운영된다.

특히 전문 사육사가 참여하는 생물 도슨트 프로그램 '생태교육·체험'은 이번 행사의 핵심 콘텐츠로 꼽힌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생태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달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을 생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순천서 노을보며 하룻밤 더 머무르세요"

시, 생태·문화·미식 연계 체류형 관광 유도
11월까지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가동

순천시가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을 맞아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파격적인 숙박 혜택을 선사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숙박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순천의 수려한 생태자원과 미식, 문화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제외한 외지 관광객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앱 'JN TOUR'를 통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받은 후, 지정된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면 된다.

할인 폭은 숙박 금액에 따라 촘촘하게 설계됐다. 1박 기준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슬로우 여행'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연박 시 3박까지 혜택을 적용해 최대 12만원의 통 큰 할인을 제공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을 찾은 순천시 누적 관광객이 28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휴가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시는 이번 이벤트가 순천을 찾은 이들에게 '하룻밤 더 머무르고 싶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찍고 가는 여행이 아닌, 순천의 노을을 보고 남도의 진미를 맛보며 달콤하게 쉬어가는 여행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낮의 화려함만큼이나 밤의 고요함이 아름답고, 새벽 안개가 신비로운 도시다"며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순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 'JN TOUR' 앱을 통해 혜택을 챙겨 가장 완벽한 순천의 멋과 맛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만 전경

곡성, 공공구매 활성화·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읍·면 물품 담당자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곡성군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 물품·구매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함창환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구매 절차 및 구매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전남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생산시설 현황과 다양한 생산품을 소개하며 실제 구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우선구매 대상 품목, 수의계약 가능 범위, 구매 실적 관리 방법 등 실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구매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gwangnam.co.kr